

익산시, 명품교육도시 조성 박차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개최...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 추진 만전 다짐

익산시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하이브(HIVE) 사업을 통해 명품 교육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지역사회, 전문대학,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 연계·개편 등을 통해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9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운영 실적 및 성과 목표 달성률과 내년 주요사업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익산시, 원광보건대학교, 익산상공회의소, 익산교육지원청, 익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자협의회, 창해복지재단, 진경여자고등학교, 원광보건고등학교, 익산 희망나눔지역 아동센터 등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도 2차년을 맞이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이 지역특화분야를 연계한 창업메디푸드, 메디푸드 HMR, 식품위생관리사, 재가 노인 방문 돌봄 토크, 헬스케어 움직임 전문가 등의 직업교육과정으로 특색있게 운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직업분야로는 웰빙 라이프 창업 스킴, 패션 주얼리 전문가 양성, 미래 설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시는 지역사회, 전문대학,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교육체계 연계·개편 등을 통해 지역기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벤처 기업 지원, 부모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돌봄사업, 익산형 백제문화 관광 사업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위원회는 내년에 지역 산업체 참여 기반의 교육과정 고도화와 지역 산업을 활용한 정규 교육과정,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인 '익산 희망나눔지역 아동센터'가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에 신규 위촉돼 지역 현안 해결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백준흠 원광보건대학교 총장은 "지역특화분야 교육을 더욱 발전시켜 교육생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 나아가 재학생과 익산 시민들이 계속 머무르고 싶은 익산 만들기에 원광보건대학교가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이 정현을 시장은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을 더욱 견고히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고등직업교육혁신위원회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정주여건 개선을 시작으로 명품교육도시 익산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숨리 메타누리길, 맨발로 산책하자'

익산시 금곡-신평마을 1.2km 구간, 맨발길·이색 보도길 조성

익산시 인화 공원에 있는 숨리메타누리길에 맨발 전용 산책로가 마련돼 익산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시는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인화공원 숨리메타누리길(4.2km) 중 춘포금곡마을부터 신평마을까지 1.2km 구간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다. 산책로에는 다양한 패턴의 보도블럭과 퍼즐러(شط터)와 결합한 14종의 운동기구가 설치됐고 이색적인 관목·초화 식재도 이뤄졌다.

특히, 전라선 폐선 부지라는 특색을 살려 열차 칸 이미지의 화장실과 파노라마 가벽, 철도 레일을 재현해 전라선 철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등 기존 공원과 차별화했다.

시작점의 700m부터는 확장구간이다. 퍼즐러와 흔들 그네, 포드존, 데크 전망대 등 시설물이 설치돼 시민



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맨발 산책로는 계절마다 변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며 방문객들에게 도심 속 특별한 여유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내년에는 인화공원 종점부터 춘포역까지의 구간(850m)에 맨발 산책로와 함께 이색적인 관목과 초화 식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물품 기탁

소외계층에 이불 400채 전달

군산시는 29일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공장장 배정우)가 추운 겨울 소외계층을 위해 겨울이불 400채(2,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난 2022년 10월 재가동 때 올 2월 첫 블록을 성공적으로 출항, 그동안 침체되었던 군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배정우 공장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의 품과 마음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임대아파트 입주 피해 최소화 지원 나서

익산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입주관련 피해 대책 촉구

익산시가 임대아파트 입주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 결연서 전방위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에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특정 임대공동주택과 관련, 입주인 임대보증금 보증 수수료 미지급과 입주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고물가 상황에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악화했고, 그 여파로 일부 임대아파트 신축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민간 임

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는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있으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대출 연장 문제나 입주 지연·추가 보증 수수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민원을 접수한 익산시는 최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 미리 취합한 임차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공사 측에 임차인 보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

청년 만족도 99% 기록

익산시가 근로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이 지역 청년의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대상자 1,7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매우 만족, 9%가 만족한다고 답해 합산 만족도 99%로 집계됐다. 만족도는 3년 연속 98%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근로 청년 수당 사용 용도와 회사생활 만족도, 퇴사 의향, 개선 요청사항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항목으로 구성해 청년의 의견을 살폈다.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의 주요 용도는 '식품, 교통 등 생활비'가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취미·문화생활' 17%, '자녀 교육비' 16% 등으로 집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익산형 근로 청년 수당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진행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익산형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촌지역 개발

사업 시설물 활성화 주력

군산시는 농촌지역개발 사업 시설물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운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월 1일 육산힐링센터(육산로 245)에서 주민을 비롯한 사업추진 관계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 활성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은 '공공 시설물 위탁운영 방안'과 '비영리 공동체사업 운영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 용역사, 위탁시행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운영방안을 고려한 시설물 계획, 시설물과 연계한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완료 후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군산시 '마음 씬'... 참여자들의 변화 등 긍정적 효과 특출

군산시가 재가 발달장애성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마음 씬' 사업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마음 씬' 사업은 지난해 재가 보호종이면서 평생교육이 단절된 발달장애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집으로 직접 찾아가 음악·미술·원예심리 프로그램 지원했다.

올해에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독서심리'를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가, 기존사업과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거주 발달장애성인 60명의 신규 대상자와 전년도 '마음 씬' 사업 참여자 중 20명을 선정해 대상자 가정 및 지역사회 내 프로그램 관련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발달장애성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문지식을 갖춘 강사와 매니저가

집으로 파견되어 진행하는 마음 씬 사업은 발달장애성인의 특성상 새로운 자극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학습된 무기력, 타인 접촉 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보호자의 도움 및 강사, 매니저의 노력으로 초기 관계 형성이 되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속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는 대상자들이 많다.

매년 신규 대상자발굴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지만 참여자들의 변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마음 씬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 보다 전문적인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관내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업적응훈련센터를 이용하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대상자도 있다. 또한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다른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역할도 하기도 한다.

'마음 씬' 사업은 군산시가 2023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을 확대해 '마음 씬 동아리, 여기모여'를 추가 운영 중이다.

'여기모여'는 2022~23년도 '마음 씬' 대상자 중 읍면동별 3명씩 3그룹을 선정해 진행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현재 조촌동(원예심리), 삼학동(독서심리), 대야면(음악심리)에서 진행 중이다. 그룹으로 진행됨으로써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을 몸소 익히는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합동작품 만들기, 합주하기 등 혼자서는 어려운 다채로운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인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장은 "꾸준한 대상자 발굴로 재가보호 중인 발달장애성인들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